

성시신문 Magazine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259

Winter 2026

성시화

신년인사

ADD 청소년웹진

기획특집

감동을 주는 신앙인

태초 먹거리

‘귀멸의 칼날’ 왜 젊은 세대는

권선징악에 목마른가?

문화에 빠지다

맛기행 세월에 묻힌 먹거리

영화이야기 톳과 보아스

영화감상 렘브란트

건강 겨울철 건강관리와 ‘동의보감’의 지혜

책속의 책 김학철 교수의 교양으로 읽는 기독교

이태재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사도행전으로 오늘을 읽다



창간1998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Contents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성시화

03 신년인사

06 ADD 청소년웹진 순복음춘천교회 이슬기 이야기 | ADD편집부

기획특집

10 감동을 주는 신앙인 안박순 장로 | 이연희 목사

12 태초 먹거리 - 크리스천에게 풀에서 나는 고기 추천 이유 | 박익수 집사

15 '귀멸의 칼날' 왜 젊은 세대는 권선징악에 목마른가? | 이관형 권사

17 맛 기행 세월에 묻힌 먹거리 | 이관형 원장

19 영화이야기 릿과 보아스 | 김준배 화백

21 명화감상 | 렘브란트

22 건강 겨울철 건강관리와 '동의보감'의 지혜 | 이시형 원장

23 책 소개 책속의 책 | 박도준 목사



춘천성시화운동후원하기

후원
참여

신협 131-005-937566(춘천성시화운동)

춘천성시화운동본부 QR코드 후원참여에 들어가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관 신년인사



이수형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순복음춘천교회)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춘천 땅을 주의 빛으로 밝히기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 그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시편 127:1). 이 말씀처럼, 우리의 성시화 운동은 결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길을 여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비로소 이 땅은 변화됩니다.

2026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태복음 5:14). 춘천이라는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밝히는 빛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소망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시화, 춘기연, 춘목연, 장로연합, 홀리클럽... 우리는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심장은 하나입니다. “평화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에베소서 4:3)는 말씀처럼,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분열이 아닌 연합, 비난이 아닌 격려,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나아갑시다.

이사야 43장 19절이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2026년에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춘천에서, 강원에서, 이 땅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되고,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전진합시다. 춘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도시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일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소양성결교회)

고든 맥도날드의 책 [영적 성장의 길]에 나오는 글입니다. 영국 명문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간디가 이끄는 공동체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은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며칠을 못 버티고 청년은 간디에게 항의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간디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모르는 건 당신이 작은 일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있게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때때로 그 자신감이 자만감으로 변하고

자만은 교만으로 변질될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잘 낮아지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연합회와 교회에 주어진 큰 사명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가장 작은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감당케 될줄 믿으며 낮은 자리에서 듣고 일하겠습니다.



염운호 목사
(춘천목회자연연합회 회장
춘천평화성결교회)

종소리 크게 울려라.
저하를 퍼지게 이밤에 크게 울려라.
저. 묵은해가 가는데 옛것을 올려 보내고 새것을 맞아들이라.
마음 상하게 하는 근심을 묵은 해를 보내고
또 빈부 간의 다툼을 다 멀리 올려 보내라.
못 자랑을 올려 보내고 온 백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 울려라.
보기 흉한 질병과 저황금 만능주의와 온 전쟁을 올려 보내고
새평화 맞아 들이자.

알프레드 테니슨의 메모리엄 한구절입니다. 찬송가 554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지금의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렁 차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는 모든 거짓 반목 불신의 역사속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종을 울립니다. 진리와 정의와 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아 들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한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여정의 첫 발자국을 힘차게 내딛기를 바랍니다.



강홍구 장로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회장
소양성결교회)

할렐루야!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춘천지역 복음화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장로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여러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에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장로연합회’(행 9:31)라는 슬로건을 들고, 우리 모두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협력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장로들의 연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장로님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새해에는 더욱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빛과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장명주 장로
(춘천홀리클럽 회장
소양성결교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그리스도의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 고장 춘천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자는 기도 운동의 사명을 깨닫고 춘천에서 만큼은 “모든 교회가 전 도시에 복음을 전하자”는 운동이 1996년 6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있는 곳에서 맘을 흘리시는 선진들의 정성을 이어받아 30주년 춘천 홀리클럽 신년 기도회 및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춘천 성시화를 위한 기도회, 평신도 영성 회복을 위한 연합 성회, 창립 감사예배, 장학금 지원, 지역 비전 교회 섬김, 복음 통일을 위한 구국 기도회, 환경 보호 활동』 등을 목표로 정기 기도회를 하고 있으며 기독교 연합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여성회원과 임원 편성으로 다음세대 청년들도 회원 영입에 주력하여 좋은 아이টে으로 더욱 견고히 서가는 춘천 홀리클럽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형식에 맞추어 살면 분명한 출력물이 나오듯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므로 정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배가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회원이 되기를 소망하며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에 하늘의 복으로 계획한 일 다 이루시고 온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딩 한 때 [금쪽이]에서 어느덧 밝고 매우 솔직한 항공 승무원 준비생이된 순복음춘천교회 이슬기 이야기

ADD편집부



“항상 제 편 들어주셨는데,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오셔서 안
아주시고.....사람들이 왜 있을 때 잘하라고 말하는지 이제 알겠어
요.”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 “우리 똥강아지~
하면서 우쭈주 해주시던거...또 우리 동네에 너울숲공원이 있는데 발
음이 잘 안돼서 맨날 너울숲구녕,구녕이라 하셨거든요, 그때마다 제
가 엄청 웃었던 게 생각나요. (웃음)”

ADD 142호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름 이슬기. 2007년 11월 춘
천 출생. 장학초-강원중 거쳐 지난 월요일(1월6일) 한샘고를 졸업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조리 전공, 마음에서는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의 길을 꿈꿔왔고, 현실은 항공운항과 진학으로 결정했습니다. 순복
음춘천교회 청소년부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MBTI는 ENFP. 처음
본 사람은 물론 “그냥 누가 봐도 정말 활발하고 푼기 있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웃습니다. 거침없이 솔직하게 [슬기]
다우면서 [슬기]로운 인생을 꿈꾸는 [슬기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
니다.



5세 때 부모님 이혼으로 친가 할아버지-할머니 집에서 자라...초딩 때는 학교에서 괜히 심술부리던 [금쪽이]

“다섯 살인가? 하튼 아주 어릴 때부터 친할아버지- 할머니랑 살았어요. 부모님 사이가 좀 좋지
않으셨어요. (이혼하셨다는 뜻) 작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지금은 할아버지랑 장학리에 살고
있어요. 저녁마다 아빠가 식사하러 집에 오세요.” 몇 년 몇 월 어디 출생이고 어느어느 초중고를
나왔다는 간략한 약력 소개를 마친 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며 녹음기를 틀자, 슬기가 전해준
첫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의 말랑말랑하고 아장아장한 외동딸 에피소드를 먼저 기대했던 저에게
슬기는 자신의 인생 속 엄연한 팩트들로 혹 치고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제가 조금 [금쪽이]였어요. 그냥 괜히 애들 괴롭히고, 마음에 안들면 때리고...중학교 때는 거의 맨날 지각을 했어요. 동아리 중심 학교여서 같은 동아리 선배들끼리 같은 학급이었는데, 거기서 친해진 동생이랑 맨날 지각해서 맨날 같이 청소하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초딩 때 (금쪽이) 성격을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요즘은 너 슬기 맞냐며 사람들이 농담처럼 물어보곤 해요. 해해” 전해 듣는 저는 마음이 아리고 따가웠는데, 그 삶을 현실로 살아낸 슬기는 그저 덤덤하고 어떤 의미에서 매우 쿨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어릴 때 새벽기도 가신 동안 혼자 깨서 깜짝 놀라 잠옷 바람으로 집 앞 편의점 찾아가

잠시 심호흡을 한번 내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슬기를 키우신 셈이네?” “그렇죠.” “작년에 돌아가셨어?” “네, 화장실에서 씻으시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셨는데, 충격을 받으셨는지 약간 말을 제대로 못하시다가 뇌출혈이 의심돼서 요양병원에 한 1년 정도 계시다가...어느날 아빠가 할아버지랑 같이 와라 해서 갔는데 결국...” 이번에도 저는 슬기의 감정이 궁금한데, 슬기는 오롯이 팩트로만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감정을 감추려는 의도는 아닌 거 같았습니다. 굳이 감정까지 얘기할 필요를 못 느끼는 느낌이라랄까!



“(할머니 계시지 않는) 지난 1년...어땠어?” “제가 밖에서 누구랑 싸워서 속상해하면 할머니가 항상 제 편 들어주셨는데,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오셔서 고민도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안계시니까...(머뭇머뭇) 이제야 사람들이 왜 있을 때 잘하라고 말하시는지 알겠어요. 사실 할머니랑도 많이 싸웠거든요...” “할머니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 “에구 우리 똥강아지~ 하면서 우쭈주 해주시던거...또 우리 동네에 너울숲공원이 있는데 할머니는 발음이 잘 안돼서 맨날 너울숲구녕,구녕이라 하셨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엄청 웃었던 게 생각나요. (웃음)”

그리고 아주 어릴 때. 한동안 할머니랑 제가 새벽 기도를 거의 맨날 다녔단 말이에요. 물론 기도 시간에 자주 자긴 했지만...(웃음) 어느 날인가. 할머니가 새벽기도 가신 날이었는데, 제가 너무困히 잠들어 있으니깐 그냥 저 혼자 두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깨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때 또 혼자 있는 걸 엄청 무서워했던 말이에요. 잠옷 바람으로 집 바로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으로 바로 갔던 것도 생각나요. 집 바로 앞이라 자주 다녀서 아저씨를 잘 알았거든요. 거기서 기다리다 할머니 오셔서 집에 다시 갔던 게 생각나요.”

([그 때 그] 세븐일레븐 점장님! 조금 늦었지만~ 우리 슬기 그때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

엄마랑은 계속 만나는 중...재혼하신 가정에 두 살 많은 언니 있어 완전 좋아...마치 자매의 꿈 이룬 느낌!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못하고 있던 엄마 이야기를 슬기가 스스로없이 먼저 꺼냈습니다. “엄마도 자주 만나요. 재혼하셨어요. 언니랑 오빠가 있는 가정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아?” “제가 외동이어서 늘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매인 친구들을 부러워했었던 말이에요. 게다가 그 언니가 중학교 2년 선배더라고요. 어쩐지 낯이 익다 했어요. (활짝 웃음) “엄마 없는 시간이 쉽지 않았을 거 같은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왜 나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안 살지? 하면서 기분이 안 좋아지긴 했던 거 같은데, 중학교 이후로는 괜찮았어요. 헤헤.”

“아빠는?” “아빠랑은 엄청 싸우죠.” (후후. 아빠는 어떤 분인지를 물었는데, 이번에도 슬기는 솔직한 팩트(자주 싸운다)로 응답했습니다. ^^) “그게 다야?” “저랑 유머코드가 잘 맞아요. 그리고 [촌대레]세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거저거 먹고 싶다고 막 얘기하면, 듣고 있지도 않은 것처럼 아무 말도 없이 계시다가 저녁 때 집에 오실 때 뭔가 손에 들고 오세요. 제가 말했던 그 먹고 싶던 거. 후후. 이번에 대학을 (춘천까지 연결된) 직통 버스가 없는 타지(경기도)로 가게 돼서 주말 통학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빠가 해결해 주신 대요. 헤헤.”

엄마도 떨어져 계시고, 촌대레 아빠에, 유일한 친구 할머니까지 천국 가신 지금...예수님은 완전 친구 같아요~



“살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어?” “중학교 때요. 왜 그냥 겉으로는 친해 보이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약간 저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였어요. 솔직히 저는 그 친구들이 왜 저를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저를 억까(너무 억지스럽게 특정인을 비난하는 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고, 쉽지 않았겠네. 그럼 그 때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어?” “그냥 혼자 올라가...” “그걸로 되나? 슬픈 노래라도 들어야 하는 거 아냐?” “맞아요. [검정치마]랑 [아이유 언니]! 너무 예쁘고 멋져요. 헤헤.”

끝으로 ADD 질문의 시간. “예수님은 네모다 라고 한다면, 그 안에 뭐라고 써넣을 거 같아?”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제일 친한 친구?일 거 같아요. 원래 저희 가족이 다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러다 엄마는 저 출산하고 나서 안 다니시고, 아빠는 코로나 터지고 안 다니시고, 할머니랑 할아버지 다니시다,

작년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저랑 할아버지만 남은 거예요. 다른 언니나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제가 어딜가든 내 옆에 함께해 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 주신 분이 제게는 늘 예수님이셨어요...세상에 이런 친구 없죠...(^^).” (글 최승호/ 편집 이민서/ 사진= 본인제공)

P.S.

순복음춘천교회 청소년부 김신애 전도사님께서 슬기를 위한 축복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1. 사랑하는 슬기야!

아직 전도사님이랑 한참 더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느새 학생부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네.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되어서 전도사님도 너무 기쁘다. 졸업은 했어도 전도사님의 잔소리는 계속될 거니까 긴장 풀지 말고 ^^ 항상 지켜보고 있어. 이.슬.기.

우리 슬기도 알다시피, 슬기는 정말 많은 교인분들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키운 아이잖아. 하나님께서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전도사님은 우리 슬기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길 기도해. 잔잔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말이야. 지금도 우리 슬기는 따뜻하고 예뻐. ^^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새로운 시즌은 지혜롭게 주님 손 잡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우리 슬기~ 눈 크게 뜨고 다녀. ㅎㅎ

2. ADD 편집팀도 멋진 항공 승무원이 되어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닐 슬기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최고의 엄마가 되고 싶다는 슬기의 꿈이 이뤄질 때까지 주님께서 슬기와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슬기 파이팅. ^^

<인스타그램 add_1618_ / 카카오톡채널 add_1618>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

안박순 장로(성암감리교회-담임목사 민경원)이야기 첫 번째

이연희 목사

(아미교회, 성시신문 편집위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라는 찬송가를 우리는 가끔은 부른다, 그러나 십자가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고난의 상징이요, 고난의 최고봉인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십자에 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헌신하신 안박순 장로의 이야기를 두 편에 걸쳐 함께 하고자 한다.



1. 기둥 8cm, 날개 4cm, 2cm 미터의 규격화된 십자가

1943년생 안박순 장로는 2005년 감리교 연수원에서 진행된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남다른 은혜를 경험하였다.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 희생의 마음을 담아낼 길을 자신의 인생에 담아내기 시작하였다. 어디서 보거나, 배운 적이 없다. 권유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니, “과연 주님의 십자가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에 사로잡혔다.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에 목이 메고, 마음 가득한 사랑이, 두 눈에 넘치는 눈물이 십자가를 만드는 일에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하였다.

조각을 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원단을 재단하여 옷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는 수치와 규격이 있다. 규격이 맞지 않으면 크기와 모양이 원하는 대로 작품으로 나올 수 없다. 그리하여 작은 수치도 정확도를 기하고, 재료와 재질을 선별한다. 안박순 장로는 43년생으로 62세 경인 2005년부터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노간주나무와 다른나무(속과 겉의 색깔이 다른 나무)를 주재료로 사용하였다. 직접 산에 가서 나무를 준비하기도 했고, 아는 지인들이 갔다가 주기도 했다. 안박순 장로는 십자가 만드는 최고의 나무라고 하였다. 때로 향나무를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드물었다고 했다.

스승도, 선배도 없었지만, 십자가가 정교할 뿐 아니라 나무의 재질과 특징을 살려서 아름다운 교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보급하였다. 2005년부터 시작된 십자가 사랑의 작품이 수천 개에서 일만 개 정도 된다고 하였다. 교회 예배당에 거는 대형 크기의 십자가로부터, 성도들의 목걸이용, 자동차에 장식용, 전도용으로 만든 십자가가 국내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예수님의

▲ 안박순 장로

십자가 사랑을 말이나, 문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나무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일에 복음 전도자의 열정을 담아 쏟아부었다.

날이 갈수록 서서 대패질하고, 다듬는 일들이 힘에 겨워 중단하게 되니 누군가는 후계자를 양성 하라고 쉽게 말하지만, “이것은 배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던 것이라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장로님께서서는 두 개의 나무를 합쳐서 만드는 하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한 나무의 크기가 12cm가 되어 하나의 십자가를 만들 수 있을 때만 그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었다. 12cm의 나무를 세로와 가로에 맞게 재단하여 자른 후 십자가를 만드는 일이 몸통이 큰 나무는 자르는 일부터, 손질하는 모든 과정이 시간과 땀과 힘에 겨운 날들이 한해 한해 다가왔다. 그리하여 십자가 만들던 작업을 중단한 지 5년여가량이 되었다.

십자가 만드는 일은 중단되었지만, 십자가를 사랑한 안박순 장로의 주님 사랑은 십자가를 선물한 교회와 성도들, 선교지, 문화유적지 교회, 전 세계에 퍼져나간 곳에서 주님의 사랑도 계속되고 있다.

누군가는 십자가가 얼마냐고? 파느냐고? 거침없이, 주저 없이 던질 때가 있단다. “주님의 십자가를 파는 장사꾼은 아니다. 주님이 베푸신 사랑 때문에 시작한 십자가 사랑도 주님처럼 거저 주고, 나누고, 베풀 것이었다”고 말한다.

2. 십자가 사랑의 진수 자천교회 봉헌한 십자가

한국 문화유적지 교회 중 2026년 123년 된 교회가 있다. 경북 영천의 자천교회이다. 자천교회는 국가문화 유산자료에 등록된 교회로 경북문화 유산자료다. 기독교 123년 넘은 교회이지만 국가의 문화유산 자료로도 유명한 교회이다. 한옥마을 촌에 위치한 교회요, 1903년에 선교사와 한 장로님이 설립한 교회로 당시 교회 건축사의 역사적 자료로 귀한 가치를 담고 있는 교회이다.

2007년도 103년 되었을 때 알게 된 자천교회는 안박순 장로의 십자가 사랑이 역사적으로 국가 문화유산과 함께 널리 알려지고 있다. CBS 새롭게 하소서를 보던 당시 교회 안의 십자가가 한옥 건물의 예배당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을 바라본 안박순 장로는 자천교회에 전화하여 십자가를 기증 하겠다고 하였다. 당시 자천교회 손삼문 목사님께서도 방송과 더불어 교회 십자가를 새롭게 교체 할 기도를 하던 중이라고 하였다. 안박순 장로의 교회와 십자가 사랑이 손삼문 목사의 기도와 일치 하는 놀라운 일이 전개되었다. 교회 봉고차에 실어서 운반할 만큼의 큰 십자가를 만들어 자천교회에 기증하고, 십자가 봉헌식을 하였다. 한옥 건물 문화유산인 자천교회뿐 아니라 예배당 안에 봉헌한 안박순 장로의 십자가도 선진들의 발자취와 함께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십자가를 소장하고 있는 자천교회를 방문하면, 안박순 장로의 십자가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깊이 가슴에 새겨지리라.

태초 먹거리

- 크리스천에게 풀에서 나는 고기 추천 이유

박익수 집사

(예담교회, 성시신문 편집위원)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발 짐승의 정결 기준

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가운데 네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이러하다.

레위기 11장 3절 : 굽이 둘로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어느 것이든 먹어도 된다 (터메시지 성경).

레위기 11장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한(clean)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unclean) 짐승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한 짐승의 기준은 첫째 : 되새김질을 할 것, 둘째 : 굽이 갈라져 있을 것 (대표적이 정한 가축은 소, 양, 염소, 사슴류, 물소, 들소 등).

새김질 : 다시 꺼내어 먹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되새겨 묵상하여야 함을 교훈해 준다는 뜻,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뢰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쪽발 : 굽이 갈라져 두 개의 발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 해 준다 (매튜 헨리 신학자). 골로새서 3장 2절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반추동물은(양, 염소, 사슴, 노루, 소 등) 사람들이 경작하지 않는 야산이나 계곡 사막 등 숲속의 거

친 잡초와 참나무 칩덤불 등 숲속의 나뭇잎을 주로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소화하지 못하는 잡목나무잎들인 섬유질을 새김질 동물들은 4개의 위로 미생물 발효 능력을 가졌고 섬유질을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으로 전환하여 영양을 흡수하는 특수한 성질을 가졌다... 잡목나무잎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발산한다... 이런 오묘한 순환 작용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운영되어 진다. 풀을 주식으로 하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취하라는 성경의 뜻을 다시 되새겨 봐야 하는 진리를 깨달아야겠다.

태초의 먹거리

크리스천에게 풀에서 나는 고기를 권하는 이유

성경은 인간의 먹거리에 대해 단순한 생존의 문제를 넘어, 창조 질서와 영적 원리를 함께 제시한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생명체에게 먹거리를 직접 지정해 주신다.

“은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창세기 1장 11절)

또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에게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다(창 1:30). 이는 태초의 먹거리 질서가 자연의 순환과 조화를 기반으로 한 생명 중심의 질서였음을 보여준다.

정결한 짐승의 기준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을 구분하여 알려 주신다. 레위기 11장은 이를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장이다.

“굽이 둘로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어느 것이든 먹어도 된다.”(레위기 11장 3절, 더 메시지 성경)

정결한 짐승의 기준은 분명하다.

첫째, 되새김질을 할 것

둘째, 굽이 갈라져 있을 것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가축은 소, 양, 염소, 사슴류, 물소, 들소 등이다. 이 구분은 단순한 식품 규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적 가르침을 담고 있다.

새김질과 굽이 말하는 영적 의미

되새김질은 한 번 삼킨 먹이를 다시 꺼내어 충분히 소화하는 과정이다. 성경은 이를 통해 하나님

의 백성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친다. 말씀을 한 번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되새기며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뢰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참된 말씀인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행 17:11). 새김질은 곧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신앙의 자세를 상징한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방향이 분명하다는 뜻이다. 매튜 헨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해석했다. 바울 역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골 3:2)고 권면한다. 정결한 짐승의 신체적 특징은 곧 구별된 삶의 영적 표지인 셈이다.

반추동물과 창조 질서의 지혜

되새김질하는 반추동물들은 사람들이 경작하지 않는 야산과 계곡, 숲속에서 자라는 거친 잡초와 잡목의 잎을 주식으로 삼는다. 인간에게는 직접적인 식량 자원이 되지 않는 섬유질 식물을, 하나님은 네 개의 위장을 가진 동물들에게 맡기셨다.

이 동물들은 미생물 발효 과정을 통해 섬유질을 에너지와 단백질, 비타민으로 전환한다. 동시에 잡초와 잡목의 잎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함으로써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한다.

이 모든 과정에는 낭비 없는 창조의 지혜, 그리고 생명이 서로를 살리는 순환 질서가 숨어 있다. 사람이 경작하지 않는 땅에서 자란 풀을 먹는 동물, 그 동물을 먹는 인간,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자연의 구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다시 묻는 성경적 먹거리

성경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취하라고 한 말씀은 단순한 식습관의 지침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인간이 그 질서 안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다.

풀에서 나는 고기는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먹거리이며, 동시에 말씀을 되새기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영적 초대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먹는 것조차도 신앙의 영역임을 깊이 성찰해야 할 때다.



‘귀멸의 칼날’ 왜 젊은 세대는 권선징악에 목마른가?

이관형 원장(춘천자연유치원)



최근 우리나라 박스오피스 1위를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이 차지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주요 팬층은 우리 사회에서 정의와 공정을 가장 갈구하는 젊은 세대인 2030세대라 처음엔 나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직접 시청해 보니 깨달았다.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권선징악’이, 그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또렷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1. 왜 젊은 세대는 권선징악에 목마른가?

왜 2030세대가 ‘악은 반드시 심판 받는다’는 단순한 메시지에 열광할까?

이유는 분명하다. 현실에서는 그것을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이 나라에는 죄를 지어도 당당한 사람들, 악을 행해도 오히려 보상받는 사람들, 자신들의 배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탐욕을 가진 사람들, 공평과 양심이 없이 공정을 외치며 불의를 행하는 위정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애니메이션 속에서 정의를 찾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나 역시 요즘 ‘귀멸의 칼날’, ‘체인소맨’ 같은 처절한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면서 현실에서는 사라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씩씩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곤 한다.

2. 대한민국은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좌파의 나라가 아닌 우파의 나라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1945년, 6.25전쟁, 전쟁 후의 폐허,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잡으셨다. 세계가 기적이라 부르는 경제적 부흥,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를 이기게 한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경고한다. 하나님의 법이 버려지는 나라, 불의가 판치는 나라, 악인이 다스리는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가 사라진 이스라엘을 향해 “정의를 물 같이 흐르게 하라”고 외쳤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

3. 지금 우리는 국가적·영적 위기 한복판에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영적 위기 가운데 있다.

진리가 무너지고, 공의가 조롱당하고, 악이 오히려 힘을 얻고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사 5:20)

이 말씀이 오늘 이 나라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있다. 사기꾼이 영웅처럼 떠받들어지고

거짓이 진실을 삼키고 힘 있는 자가 죄를 덮고 약한 자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진행되는 사회의 모습이다. 이대로 가면 이 나라는 스스로를 향한 자살적 폭주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4. 그러나 희망은 있다 - 하나님께 무릎 꿇는 성도들이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정의가 물 같이 흐르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일이다. 그럼 시작은 어디일까? 정치가 아니다. 시민단체가 아니다. 언론도 아니다.

바로 성도들의 무릎 위에서 시작된다.

시편 33편 12절은 말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 그 나라가 복이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치가 결정하지 않는다. 언론이 결정하지 않는다. 국제정세가 결정하지 않는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느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느냐에 달려 있다.

5. 이 나라를 살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정의가 물 같이, 공의가 강 같이 흐르게 하라.”

이 요구는 정치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나라를 살릴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다. 국회의원도 아니다. 언론도 아니다.

바로, 기도하는 성도인 우리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라를 회복시켜주신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해야 한다.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공의와 진리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24)

세월에 묻힌 먹거리

이관형 원장
(춘천 자연유치원)

가끔 초등학교 앞 분식점 앞을 지날 때면, 아이들이 입가에 묻은 양념도 닦지 않은 채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곤 한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어느새 70년대 중반 국민학교 시절의 내가 떠오른다.

그때의 내 머릿속에는 온통 ‘밥 생각’ 뿐이었다.

수업 중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선생님은 “왜, 집에 먹다 남은 음식이 생각나냐?” 하고 타박하시곤 했다. 조금 연세가 있던 선생님들은 “집에 있는 꿀단지 생각나지?” 하고 농담 섞인 말쑤를 건네셨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도무지 와닿지 않는 말일 것이다. 그 시절 우리는 끼니는 해결되었지만 풍족하지는 않았다.

아침에 특별식으로 카레밥이나 닭도리탕, 혹은 소고기국이라도 먹은 날이면, 저녁에도 그대로 있지 않을까 하고 하교 후 부엌을 뒤적여 보곤 했고 끝내 찾지 못하고 허탈해하며 군침만 삼킨 날도 많았다.

요즘처럼 찬 바람이 두 뺨을 스치는 겨울이면, 동네 구멍가게 앞 연탄불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오르며 빙글빙글 돌던 찜기 속 호빵과 그 옆에 놓인 뜨거운 팔죽이 들어 있던 쭈쭈바를 쭈 빨아 먹던 기억이 유독 생각난다.

야채호빵이 처음 나왔을 때는 큰 만두인 줄 알고 얼마나 기뻐는지 간장에 살짝 찍어 야금야금 아껴서 먹기도 했다. 그리고 늦은 밤 동네 어귀에서 들리던 찹쌀떡·메밀묵 장수의 외침을 들으며 사 먹지는 못하고 입맛만 다시다 잠들던 기억들...

그 시절을 떠올리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요즘 아이들은 풍요로움은 많아졌지만, 배고픔이 가르치던 감사의 마음은 조금 잃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다.

1970년대 설날의 풍경

새해가 다가오면, 초등학생이던 나와 형은 쌀을 리어카에 싣고 안개 낀 추운 새벽을 헤치며 방앗간으로 향했다. 방앗간 앞에 길게 늘어진 줄에서 콧물을 흘리며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왼쪽 소매가 반질반질하게 굳어 있었다. 그러나 집안일을 도왔다는 뿌듯함이 어린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곤 했다.

종갓집 맡며느리셨던 어머니는 새해 상차림 준비를 위해 종종 중앙시장에 다녀오셨다. 그때마다 나는 시장 한가운데 있던 ‘양키시장’에서 팔던 네모난 깡통의 미제 코코아를 사달라고 졸랐지만,

결국 초콜릿 막대사탕 하나도 들고 오지 않으셨다.



하지만 새해 초에 서울에 살고 있는 고모들이 아버지 선물로 그 시절 판매가 불법이었던 양담배와 실제로 본 적 없는 파인애플이 든 큼직한 깡통에 든 미제 통조림을 갖고 오셨다. 그러면 그걸 몰래 들고 나가 동네 친구들에게 나눠주지는 않고 자랑만 한 뒤 돌아와 아껴서 맛있게 먹은 뒤 파인애플 통조림은 농촌 아이들의 겨울 필수품인 ‘오줌 깡통’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깡통 바닥에 못으로 송송 구멍을 내어 짚불 놀이날 불꽃을 피웠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겹고 정겨운 시절이다.

음식 속에 담긴 새해의 의미

강원도와 달리 경상도에서는 떡국에 만두를 넣지 않는다. 새해 첫 그릇의 떡국에는 깨끗함, 새 출발, 장수와 번영을 상징하는 새하얀 가래떡만을 썰어 끓이는데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일본에서는 연말연초에 세이로 메밀국수를 먹으며 한 해의 액운을 끊어낸다고 한다. 면이 쉽게 끊어지는 특징에서 액운을 버린다고 유래한 풍습이다. 또한 옛 금·은 세공 장인들이 떨어진 금가루를 메밀가루를 묻쳐서 찍어내 모았다는 데서 재물 운의 의미도 생겨났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일에 ‘면발처럼 길게 오래 살라’는 뜻으로 국수를 먹는 것과도 통한다.

해돋이를 보기 위해 누군가는 바닷가 리조트에서 해돋이를 바라본 뒤 근사한 조식 뷔페로 새해를 열 것이고, 누군가는 새벽 산길을 올라 해돋이를 바라본 뒤 몸을 녹이는 뜨끈한 만둣국 한 그릇으로 새해를 맞을 것이다. 그 모습이 다르고, 그 크기가 달라도 비교할 필요는 없다. 비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가장 먼저 감사하는 적이기 때문이다.

60을 바라보는 필자의 행복은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딘가 갈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이다.

새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일까? 새해는 단순히 결심을 만드는 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새 사명의 날’이다.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고, 가정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회에서 기도로 섬기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다. 이 모든 작은 일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룬다. 2025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힘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얻기를 기도한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

이 고백이 새해의 시작과 끝에 늘 함께하시기를 축복한다.

룰과 보아스

김춘배 화백
(성시신문 편집위원)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소셜 네트워크나 영상을 통한 복음 전파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온라인과 영상이 삶의 일부가 된 시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고, 소통하고, 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고 세상을 이해한다. 유난히 기독교영화 콘텐츠를 많이 올리는 OTT 넷플릭스에서 눈길을 끄는 바로 이 〈룰과 보아스〉로 인해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다.

구약성경의 8번째 책 룯기는 머느리와 시어머니, 즉 고부 간의 미담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가정에서 가족의 단일화로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어가는 풍토 때문인지 고부 갈등은 거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에 그러한 고부 관계가 어떤 의미인가. 단순한 효(孝)의 도덕적 교훈으로 보면 안될 것이 하나님의 이방인들에 대한 배려와 그 역사하심의 요요한 섭리가 함축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면밀히 묵상해야 할 책으로 봐야 할 것이다. 룯과 보아스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는데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을 보아 믿음의 혈통이 특정한 가문과

민족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획 안에 아주 작은 부분 하나에도 은혜에 따라 주어지는 특권이요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성도들도 익히 많이들 알고 있는 룯의 이야기지만 잠시 정리해보자면,

사사 시대, 주전 1100년경 나오미가 모압 땅 이민에서 실패하여 두 아들을 잃고 머느리 룯만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시모를 위해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룯에게 온갖 편리를 다 제공했다. 그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하며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자신의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 품꾼으로 온 사람들에게



게도 이방 여인 롯을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했고, 주인을 위해 길어온 물도 함께 마시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모압 출신 롯을 인격적으로 취급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보아스는 당시의 법을 초월해 가난한 자를 섬겼다.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의 마음 속에는 여호와로부터 받은 깊은 사랑이 늘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루어서 율법을 넘어서, 예수님의 초림하는 통로가 된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다.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사람(one new man 엡2:15)을 이룬다고 말한다. 두 존재가 한 몸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이다. 바울은 롯기의 모든 얘기를 끝어다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는 애틀란타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주인공 롯이 남자친구와 그 아버지가 사망하자 남자친구의 어머니 나오미와 테네시로 옮기며 가수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흑인 여성이고 성경의 보리밭이

아닌 포도원을 운영하는 보아스는 테네시에서 롯은 포도농장에서 일하며 보아스를 만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며 관계를 발전시킨다. 보아스는 롯의 음악적 재능을 지지하며 유명 프로듀서 ‘베이비 페이스’를 소개해 준다. 롯의 과거가 드러나며 매니저 사이러스가 마을에 찾아와 위협하고, 보아스의 와인 창고에 방화를 시도한다. 보아스가 이를 막고 경찰에 신고해 사이러스가 체포되며, 롯은 위협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알라나 브라운 감독이 연출하고 세라야, 타일러 레플리, 필리시아 라샤드가 주연한 이 작품은 잔잔하고 깊은 음악과 함께 현대적으로 변용된 성경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

264,2 X 205,1cm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사의 용서를 엿 볼 수가 있는 이 작품은 바로크 시대의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으로 주제는 성경 누가복음 15장 11~32절 말씀이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초라하게 무릎 꿇은 채로 울고 있고 그를 따스하게 포옹해 주는 아버지는 마치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속죄의 사랑이 느껴진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 죄악 가운데에서 허랑방탕하게 헤매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우리들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했던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실까? 아마도 고통과 슬픔에 잠기셨으리라 생각된다.

그동안 사랑과 믿음의 품안에서 뛰쳐나갔던 탕자들을 2026년에는 우리가 찾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품속으로 이끌어 오길 바란다.



왜 갑자기 아플까요?

이시형 원장(이시형 한의원)

한의원 진료에서는 환자에게 언제부터,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묻는 문진 절차가 있습니다. 어느 날 협착증으로 다리 저림이 심한 한 주부께서 내원하셨는데, 텃밭 일을 하고 나면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텃밭 일을 당분간 쉬도록 권유했지만, 통증은 좋아졌다 나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다시 생활을 자세히 여쭙어보니, 새벽마다 2~3시간 동안 방바닥에 오래 앉아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장시간 앉는 자세는 허리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필사하도록 권해드린 후부터는 통증의 재발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지속해 온 잘못된 자세가 통증을 악화시킨 사례였습니다.

또 다른 남자 환자분은 오른쪽 엄지손가락 저림을 호소하며 찾아오셨습니다. 따로 특별한 원인을 찾기 어려웠지만, 치료가 조금 좋아졌다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해 생활습관을 세세히 여쭙어보았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 집에서 지내며 거실과 베란다에 있는 100여 개의 화분에 매일 아침 스프레이로 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스프레이를 작동할 때 오른쪽 엄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인대와 힘줄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 속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근육과 인대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다 보면, 몸이 이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통증이 찾아옵니다. 이를 흔히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아플까?” 하고 의문이 들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세 교정과 스트레칭 등의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통증은 훨씬 더 빠르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조섭이 잘못되면 병이 생긴다(調攝失宜 生病之由也)’고 하여, 작은 생활습관 하나가 병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또한 ‘기혈이 조화되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氣血和則百病不生)’고 하여, 자세와 생활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치료보다 먼저임을 강조합니다.”

몸의 통증을 단순히 병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방식과 내 하루의 습관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치유와 변화는 훨씬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생활을 점검하고 올바른 자세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곧 신앙과 건강이 함께 자라는 치유의 길입니다.



책속의 책

박도준 목사(하늘뜻이룸교회, 글 익는 마을 독서모임)

(글 익는 마을 : 예수교장로연합회 통합 소속 춘천지역 목회자 5명이 매달 1권씩 선정된 책을 읽고 발제하고 나누는 모임입니다)

김학철 교수의 교양으로 읽는 기독교

김학철 교수의 “교양으로 읽는 기독교”는 기독교를 단순한 종교적 교리를 넘어 인류의 정신사와 문화를 형성해 온 ‘거대한 사유 체계’로 조명합니다. 20여 년간의 대학 강의를 토대로 한 이 책은 정치, 문화,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독교 문명을 분석하며, 이를 ‘보편적 언어’로 풀어내어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적 지평을 제시합니다.

특히 신앙의 틀에 갇히지 않고 ‘기독교 교양학’이라는 관점을 제안함으로써, 다원화된 사회에서 필수적인 ‘종교 문해력’을 길러준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삶의 의미와 희망이라는 보편적 질문에 대해 기독교가 지난 2,000년간 축적해 온 답을 차분하게 설명하여, 독자가 현대 사회 속 기독교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성찰하게 돕는 훌륭한 입문서입니다.



이태재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은 예배의 본질이 형식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뜨거운 갈망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저자는 현대 예배가 자칫 빠지기 쉬운 매너리즘을 경계하며, 예배자가 회복해야 할 단 하나의 시선은 오직 창조주를 향한 전심의 집중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예배를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경외함의 반응으로 정의합니다. 설령 삶이 무너진 순간일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진정한 영적 회복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감격을 되찾고 싶은 성도와 사역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실제적인 도전이 되는 영적 지침서입니다.



사도행전으로 오늘을 읽다

이 책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담은 사도행전을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 보지 않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이 마주한 현실을 해석하는 ‘생생한 지도’로 제시합니다. 저자는 탄탄한 성서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본질을 탐구하며, 당시 교회가 겪었던 갈등과 선교적 고민이 현재 우리 공동체의 문제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날카롭게 통찰합니다.

특히 사도행전의 주요 에피소드들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어, 독자들이 성경 속 인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복음의 역동성을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파편화된 오늘날의 신앙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큰 흐름 속에 위치시키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게 하는 탁월한 안내서입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건강한 가정, 행복한 시민,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도시의 모든 영역이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정, 교회, 교육, 정치, 경제, 과학기술, 예술, 미디어의 삶의 현장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만인 기도 만인 후원

만인 기도 만인 후원금은 춘천의 전 교회와 성도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소중히 쓰여집니다.

01 매일 기도해 주세요.

춘천의 성시화와 교회를 위하여,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02 정기 후원을 해 주세요.

후원계좌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본부